

## 내 나이가 어때서

### 병영칼럼



한 보 램  
국방FM 작가

필자가 작가로 있는 ‘국방FM이 좋다’ 프로그램에는 리포터가 부대로 직접 찾아가 장병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주는 ‘우리 부대 이야기’란 코너가 있다. 부대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주제가 달라지는 이유도 있지만, 장병 부모님과 전화 연결이 있어 더욱 기다려지는 시간이다. 이 코너를 하며 기억에 남는 분이 많지만, 지난달 만났던 한 상병의 아버님은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성악을 전공하는 아들의 노래를 매일 듣고 있다는 아버님의 말씀에 진행자가 물었다.

“아버님도 웬만한 칸초네 정도는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죠. 트로트 정도죠.”

이렇게 구수하게 대답을 하시고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한 곡조 뽑으셨다.

“야~ 야~ 야~ 내 나이가 어때서...”

흥이 가득한 아버님과 전화 연결은 유쾌하고도 즐거웠다. 그리고 정말 나이와 관계없이 하루하루를 재밌게 보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송을 마치고도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는 온종일 귓가에 맴돌았다. 아빠와 노래방에 가면 꼭 한 번씩 부르는 곡이라서? 아니면 많은 사람이 애창하는 곡이라서 그랬나? 곰곰이 생각해 봤지만 아마도 노랫말 때문인 것 같았다.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곡의 노랫말엔 이런 부분이 있다.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곡에서처럼 사랑에는 나이가 필요 없다. 그리고 사랑 아닌 그 무엇도 안 될 건 없다. 아니, 나이 때문에 지레 겁먹거나 포기할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조금은 불편한 순간도 있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나이와 명절이 더해질 때면 종종 찬 공기가 만들어지기도 하니 말이다.

“그래, 올해 몇이지?”

다정함이란 탈을 쓴 문제의 한마디다. 그렇다고 오랜만에 만난 분에게 “글쎄요”라면서 내 나이를 얼버무릴 수도 없는 것 아닌가. 나이를 밝히면 그때부터 시작이다.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 “그 나이에 아직 취업 준비 중이라고?” “나이 먹을수록 사람 만나기 더 어려워. 어린 나이 아니니까 얼른 아무나 만나.”...

‘그 나이’면 ‘이런 정도’는 갖춰야 한다는 인생 시간표, 이걸 대체 누가 만든 걸까? 사람마다 삶의 방향과 색깔이 다른 것처럼 시간표 역시 다르다는 걸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나 한가위나 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아닌가. 평소엔 보기도 어려운 얼굴들과 다 함께 웃고 즐기기도 시간이 부족하다. 괜히 나이 들먹이며 아픈 곳 찌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가위 연휴를 보내고 출근하는 날, 푸념하는 사람들이 줄고 나잇값과 한참이나 남은 앞으로의 명절 때문에 부담 갖는 사람은 분명 줄어들 것이다.

나이 안에 담긴 오랜 길과 삶의 흔적은 존중한다. 난 그저, 숫자에 불과한 나이에 너무 많은 감정을 신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다. 그리고 서로 다른 길을 걷고 다른 흔적을 그려내는 만큼 나이에 똑같은 숙제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 모두의 나이는 참 좋은 나이 아닌가. 사랑해도 좋고 뭘 해도 좋은 나이, 바로 우리의 지금이다.

■ 편집=김주연 기자

## 격동의 동북아 정세, 하지만 우리에게겐 강군이 있다

### 특별기고



장 영 달  
前 국회 국방위원장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심상치 않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교착상태인 가운데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 침범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등 전례 없는 도발을 감행했다. 일본은 예고 없는 수출규제로 양국관계를 휘청거리게 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재래식 무기의 열세를 극복하고자 핵무장을 추진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로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빈틈없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력한 군사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에 경고사격을 가하는 등 강력한 대응은 우리 군의 철저한 대비태세와 이를 뒷받침하는 우수한 전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난달 최초로 공개한 ‘동해 영토수호훈련’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군의 첨단 자산이 대거 투입돼 그 누구도 함부로 우리 땅을 넘볼 수 없다는 분명한 메

시지를 보냈다. 훈련에는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비롯해 공군 F-15 K 전투기, 해군의 P-3 초계기, 육군 시누크 대형 수송헬기는 물론 육군·해병대 병력이 참가해 우리 동해를 지켜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즈음 일본 자위대도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공공연히 실시했다. 단일 훈련에 실탄을 자그마치 35톤(63억 원어치)이나 퍼부었다. 일본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우리 국방예산의 두 배를 사용하며 군사력을 키워왔다. 우리가 일본의 군사력을 예의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 국방부도 2020년 국방예산을 50조여 원으로 책정하는 등 국방력 강화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 만약 국회

에서 이 안이 통과되면 사상 첫 국방예산 50조 원 시대를 열게 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방위력개선비 증가다. 2020년 방위력개선비는 약 16조7000억 원으로 전체 국방예산의 33.3%를 차지한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매년 방위력개선비의 평균 증가율이 11%에 이를 정도로 무기체계 보강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지원 아래 우리 군은 머지않아 다목적 대형수송함과 군 정찰위성 등 더욱 발전된 첨단 무기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 전방 사단을 다녀왔다. 군이 나태해졌다는 세간의 오해와 달리 최전선을 지키는 장병들의 모습은 든든함 그 자체였다. 지휘관과 장병들은 훈련 일체로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었다. 장병들은 지휘관을 존경했고 서로를 존중했다. 우리 군과 장병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다시 한번 새기고 온 좋은 기회였다.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수호자다. 국민은 군을 믿고 민주주의를 키우며 평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 우리 군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고마움을 전한다.

## 제한된 자원으로 최선의 결과를

- 군 원격의료지원체계 시범사업을 보면서

### 국방광장



이 은 솔  
메디블록 공동대표

모두 관리함으로써 치료를 위한 골든 타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군부대는 그 특성상 접경지대, 주변에 민간 시설이 드문 곳 등에 많이 위치하다 보니 교통 인프라 등의 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개별 초소의 경우는 상황이 더 어렵다.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부대는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거미줄처럼 전국·국외에 넓게 흩어져 있는 부대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관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하는 것이 최선일까에 대한 고민이 2007년 수도병원에 설립된 응급환자지원센터로 시작으로 지금에 이르렀다.

의료종합상황센터에서는 격오지의 응급성 질환 환자를 관리해 개인의 건강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표적으로 서해 최전방 말도에서 근무 중인 한 해병이 갑작스러운 흉부와 등 부위 통증을 호소해 원격진료를 시행했다. 그 결과, 대동맥 박리가 의심돼 신속히 군 의무후송헬기로 후송했고, 수도병원에서 실제로 대동맥 박리로 진단돼 응급수술을 통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살짝 스친 커터칼에 의해 안구에 생긴 상처를 의료용 카메라를 통해 종합상황센터에서 접근해 안구액이 새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 안구 파열 위험을 판단하고 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해 실명을 예방한 사례도 있다. 격오지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장병들이 건강 걱정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원은 언제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할 수 있다면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의 현실에서 의료종합상황센터는 장병들을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격의료체계 시범사업이 전국의 격오지에서 군 복무 중인 장병들에게 적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좋은 대안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 본 지면에 게재된 글들은 본지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발행인 이봉우 편집인 이길호  
대행편집장 유호상 편집팀장 이승복 취재팀장 이영선  
창간 1964. 11. 16 등록일 2010. 7. 13 등록번호 서울가00337 <일간> 인쇄인 고광현

독자관리 | 발송문의(구독신청 | 주소변경)  
02)2079-3851~2 / 팩스 02)757-9309  
인터넷 kookbang.dema.mil.kr  
우편번호:04353 서울시 용산구 두림비로 54-99

| 부서<br>전화번호 | 디지털국방일보        |                | 편집              |                | 취재              |                | 광고문의         |
|------------|----------------|----------------|-----------------|----------------|-----------------|----------------|--------------|
|            | 디지털뉴스          | 국방저널           | 편집              | 교열             | 취재              | 사진             |              |
| 일반         | 02)2079-3710-4 | 02)2079-3716-7 | 02)2079-3770-85 | 02)2079-3791-4 | 02)2079-3730-42 | 02)2079-3761-4 | 02)2079-3123 |
| 군          | 947-3710-4     | 947-3716-7     | 947-3770-85     | 947-3791-4     | 947-3730-42     | 947-3761-4     | 947-3123     |